|  |  |  |
| --- | --- | --- |
| ***24 hours Online Service* *www.PTSGI.com*** | | |
|  | | |
| **ptsgi_logo** | **ATS-logo** | **banner1** |

**翻譯測試稿**

**語文：**韓文翻中文

**類型：**電玩遊戲

**注意事項：**

1.請將全部的**譯文置於原文之後。**

**2.測試稿檔名的命名方式為「測試稿名稱-姓名」，例：「文學-王小明」。**

**原文：**

위에 설명한 네 베드 족 즉, 수인들의 유적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원래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닌 다른 곳에서부터 이주해왔다는 가설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유적지인 드래곤로드 지방에는 ‘드래곤 캐리베스’ (역자주: 드래곤 캐리베스라는 말은 고대 수인들이 쓰던 언어로, 뜻은 ‘드래곤을 영원히 증오하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라고 불리는 수인들의 무덤유적지가 있는데, 이 지방 수인들에게는 이 ‘드래곤 캐리베스’ 와 관련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수인들의 안다론 정착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순백색의 드래곤에게 쫓겨 어딘가의 대륙에서 집단으로 이곳 이베리아 대륙으로 이주해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주 할 때 오로지 자신들의 힘으로 헤엄을 쳐서 이 대륙까지 도착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에 의한 체력 탈진과 드래곤의 집요한 브레스 공격으로 많은 수인들이 죽었고 그 와중에 끝까지 살아남은 수인들이 자신들의 동료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매장한 곳이 바로 ‘드래곤 캐리베스’라는 유적지입니다. 이런 경황으로 미루어보건데 원래 수인들이 살던 이베리아 밖의 미지의 대륙에서 지금의 수인들의 조상이 되는 존재들에게 드래곤과 관련된 어떤 다급한 사건이 벌어졌었던 것은 아닌지 추측됩니다.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나 당연시되어 쉽게 간과했던 사실 중 하나인 “과연, 언제부터 이베리아에는 여러 종족들이 이토록 자연스럽게 어울러져 살고 있는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종족별로 경계가 나뉘지 않고 하나의 큰 공동체로서 타 종족과 함께 어울러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생태계의 법칙에 따르면 동, 식물의 경우 대개, 일정 지역 범위 내에는 일반적으로 비슷한 종류가 서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 별로 일정 영역을 설정하여 서로 그 범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긋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베리아 대륙의 경우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多)종족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고대 엘프나 드워프들 처럼 일부 배타적인 종족들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인간, 수인, 요정들이 태초부터 이렇게 함께 어울러 살았을까요? 저는 수인뿐만 아니라 타 종족 역시 아주 먼 옛날에 다른 미지의 대륙에서 이 대륙으로 이주해 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이번 탐사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초점을 맞추어 다시 한번 이 대륙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각 종족들의 기원지의 유적과 고대문헌을 조사했으며. 다음은 그 조사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이베리아 북서부의 블로네아 지방에서 아직까지 원시 요정들의 이주 당시의 생활모습을 지키며 생활하고 있다는 ‘나일로드 크롬윈드(요정. 223세)’가 추장으로 있는 ‘운터스 발데르’족을 방문하여 조사 내용과 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